<<유착의 사상>> 토론문(교토, 2015. 8. 27)

우리, 떠나온 자들

고병권

 1.

이 책에 대한 서평 의뢰를 받고 많이 망설였다. ‘오키나와’, 나는 그 이름을 몇 번인가 들어보기는 했지만, 어떻든 내게 그곳은 한 번도 그 역사에 대해 읽어본 적도 없고, 심지어 그곳을 방문해본 적도 없는 그런 곳이다. 게다가 도미야마 선생이 이 책, <<유착의 사상>>에서 인용하거나 언급한 텍스트들 중에는 내가 읽어 본 적이 없는 것도 많았다. 그러므로 내가 이 책을 읽고 어떤 생각을 말한다는 것은, 심각한 오독과 맥락상실의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내게 약간의 용기를 준 것은 부제에 따옴표쳐진 ‘오키나와 문제’라는 말이었다. 내게 이 말은 ‘영토로서의 오키나와’가 아니라 ‘탈영토화된 오키나와’라는 것을 생각하게 했다. 마치 따옴표쳐진 ‘오키나와 문제’라는 말이, 따옴표쳐진 채로 작은 ‘뗏목’처럼 보였고, 어떤 항해를 거쳐 내게 하나의 ‘문제’로서 찾아온 그런 느낌이었다. 물론 여기서 ‘탈영토화된 오키나와’라는 문제는 ‘오키나와’라는 고유명이 가진, 어떤 특별하고도 중요한 ‘맥락’을 상실할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이 상실은 다시 강조해두지만 크고 위험한 것이다. 그럼에도 ‘맥락 상실’의 위험은 ‘어쩌면’ ‘맥락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모험을 가능케 해주는 것도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다.

‘오키나와 문제’, 다시 말해 ‘문제로서의 오키나와’는 내가 요즘 고민하기 시작한 어떤 주제에 개입하고 또 무언가를 생각하게 한다. 그래서 감히 말하건대 어떤 친숙함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니까 물리적 장소, GPS 상의 장소로서 오키나와는 단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생소한 곳이지만, 문제로서의 오키나와, ‘문제적 장소’, ‘문제인 장소’로서 오키나와는 언젠가 내가 방문해본 적이 있는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나를 방문한 적이 있는-, 아니 이제 내가 방문하려고 하는 어떤 장소, 어떤 지대처럼 느껴진다. ‘오키나와’를 떠나서도 존재하는 ‘오키나와 문제’, 어쩌면 ‘오키나와’를 떠나서만 찾아갈 수 있는 ‘오키나와’, 탈향함으로서만 비로소 귀향하게 되는 그런 장소로서이 가능한 장소로서, 그래서 ‘한국’에서도 만날 수 있는 그런 ‘문제=장소’로서 ‘오키나와’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물론 이 경우 나 역시 ‘영토로서 한국’을 떠나야하는 것이겠지만).

이런 의미에서 ‘오키나와’는 내가 요즘 고민하는 주제의 이름으로 말하자면 바로 ‘국경’이다. ‘오키나와’는 어디에 있는가. 첫째 나는 오키나와는 국경에 있다고, 아니, 이 책 <<유착의 사상>>의 어디엔가 쓰여있는 문장으로 말하자면, “오키나와는 통째로 국경”이라고 말하고 싶다. ‘국경’에서의 삶, 호미바바의 표현을 빌자면, 그것은 ‘나라(고향, 집)에서가 아닌 삶(unhomely lives)’을 사고하는 문제로 보인다.

그런데 ‘국경’을 사고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우리는 ‘국경’을 지도에 표시된 ‘국가와 국가 사이에 그어진 경계선’과 곧잘 혼동하기 때문이다. 국가 사이에 그어진 선으로서의 국경은 국가 안에 존재하는 국경을 사고하지 못하게 하며, 무엇보다 국경 자체가 하나의 시공간이라는 생각을 못하게 한다. 마치 그것은 삶의 어떤 평면을 접어 넣고 꿰매버린 봉합선 같다. 그러므로 ‘국경’을 사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경을 하나의 ‘면’으로서, 그것도 곳곳에 편재하는 삶의 일정한 시공간으로서, ‘확보’해야 한다.

언젠가 나는 남한에 온 탈북자들이 평균 3-4년, 길게는 10년 가까이의 시간을 중국 등에서 보낸다는 보고서를 읽은 적이 있다. 남한으로 오기까지 탈북자에게는 중국이 통째로 국경일 것이다. 사실 훨씬 많은 이들(어떤 추정에 따르면 수 만에서 수십 만 명에 이른다고도 한다)은 남한으로 오지 않고, 그냥 중국에서, 주권의 신문에 적나라하게 노출된 채 살아간다. 그리고 국경을 넘어 남한에 온 경우에도 이들 상당수는 국경에서의 삶을 살아간다(이들은 특별한 숫자로 시작하는 주민번호를 부여받기에 이 번호를 본 남한 기업이나 상점들은 이들의 채용을 꺼린다. 이들은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정체와 신분에 대한 추궁, 다시 말해 신문을 받는다. 내가 작년에 본 영화 <<무산일기>>에서 어떤 탈북자는 남한에서 어떤 여건만 마련되면 미국으로 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국경을 넘어서 남한에 왔지만 여전히 국경을 넘는 꿈을 꾼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국경에서의 삶이다.) 나는 방금 탈북자들에게 중국이 통째로 국경이라고 했는데, 어떤 미등록이주자에게는 한국이 통째로 국경일 것이다. 이렇게 보면 국경은 사실상 모든 영토에서 모든 시간 동안 존재한다고도 할 수 있다. 즉 모든 영토는 언제든 국경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동일한 장소가 영토일 수도 있고 국경일 수도 있다는 것.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키나와 문제’를 통해 나는 ‘영토’에 대해서 다시 사고하게 되었다. 영토란 시공간, 대지에 대한 하나의 광학, 하나의 태도 내지 태세, 우리가 ‘주권적-법적’이라고 수식할 수 있는 그런 광학이고 시각이고 감각이고 태도라는 것이다(내가 아직은 이렇게 여러 말로 나열할 수밖에 없음을 용서해주시길!). 그런데 동일한 시공간, 동일한 대지를 다른 광학 아래서, 다른 시각으로, 다른 준비태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오키나와 문제는 내게 ‘태도로서의 영토’, ‘태세로서의 영토’ 만큼이나 어떤 ‘태도로서의 국경’, ‘태세로서의 국경’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문제는 ‘우리’가 자기 삶의 공간을 지금 어떻게 감각하고 있느냐이다.

이렇게 본다면, ‘영토로서의 오키나와’는 ‘오키나와 문제’를 사유하지 못하게 한다. ‘오키나와는 일본의 영토이다’고 말해버리면 ‘오키나와 문제’는 보이지 않게 된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잠정적으로 명명한 ‘영토’와는 다른 태도, 다른 태세로서 ‘국경’으로서 ‘오키나와’를 말할 수 있다면, 이런 오키나와는 ‘소철지옥’ 이후 고향을 떠나야했던 오키나와인들은 물론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고향이나 나라상실, 즉 식민화된 삶을 예감하거나 실감하는 사람들, 심지어 자기 나라에서조차 ‘국가 없는 삶’, 어떤 내쫓김과 내버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시공간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2.

다시 한 번 오키나와는 어디에 있는가. 첫 번째로 내가 ‘문제로서의 오키나와’를 국경에서 혹은 국경으로서 보았다면, 두 번째로, 그리고 이 책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 바, 나는 그것이 ‘신체’에 있다고 말하고 싶다. 저항으로서의 오키나와, 탈식민투쟁으로서의 오키나와는 신체 속으로 들어간 것 아닌가. 어떤 근육의 긴장 속으로, 어떤 식은 땀 속으로. 물론 이때의 신체는 육체, 이를테면 ‘근육’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니체의 용법대로, 그리고 니체가 ‘전장[전쟁터]’라고 묘사한 신체, 즉 정동들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러니까 나는 ‘신체’를 ‘정신’과 대비되는 ‘육체’로서가 생각하지 않는다. 설령 그것이 다양한 몸짓으로 나타나고 있더라도 말이다. 내게 몸짓이나 표정은 정신과 대비된다기보다 말, 즉 로고스와 비교된다. 물론 나는 이 책 <<유착의 사상>>을 통해 ‘말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 속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해온 말들이 부서지는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그런 ‘말’, ‘로고스’ 이전의 어떤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하고 싶다. 나는 이 책에서 도미야마 선생이 ‘말’을 확보하려 하면서 또한 ‘말 이전의 어떤 것’을 확보하려 한다는 인상을 받았다. ‘말 이전의 어떤 것’을 또다른 어떤 말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것을 ‘말 이전의 말’이라고 일단 불러두겠다.

이 책이 묘사하고 있는 신문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자. 앞서 내가 말한 국경, 그것은 한편으로 국가의 바깥이지만, 법의 효력이 정지된 계엄상황이 그렇듯이, 국가 권력이 더 적나라하게 목소리를 내는 곳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국가권력의 초법적인 신문이 이루어진다. 언제 어디서든 자신이 누구인지를 신문당할 수 있는 장소, 그곳이 국경이다. 여기서 신체들은 대전된 입자가 된다. 군인의 제복만 봐도 근육은 긴장되고 이마에는 땀이 맺힌다. 신체는 무언가를 알고 있음에 틀림없다. 긴장된 근육과 이마에 맺힌 땀은 신체의 앎이 표현된 것이고, 육체적 형식으로 발화된 신체의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개념 이전에 일어나는 정동(affect)의 흔들림이며(말 이전의 말), 정신의 사유 이전에 일어나는 신체의 사유이고(사유 이전의 사유), 신체가 운동하기 이전에 신체 안에서 일어나는 운동이다(운동 이전의 운동).

도미야마 선생은 ‘명사적인 것’에 대해 ‘동사적인 것’이 갖는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했다. 서문에서도 자신의 글에 ‘동사’를 개념화한 것이 많다고 했다. 그런데 나는 움직임 이전에 일어나는 어떤 움직임, 그러니까 동작으로 표현되기 이전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정동적 고양이나 격변에 대해 말하고 싶다. 그것은 어떤 움직임 즉 변화이지만, 어떤 이동이라기보다는 강렬도의 변화이다. 움직임으로 표현되기 이전의 어떤 준비태세, 그러나 그것은 외견상으로는 멈춤이지만 내면에서는 정동의 변화, 어떤 긴장이다.

나는 여기서 다시 한 번 ‘말’이라는 말과 ‘동사’에 대해서 생각해본다. 본래 서양어에서 ‘동사(verb)’는 ‘말(라틴어, verbum)’을 뜻한다. ‘말’을 확보한다는 것과 ‘동사’를 확보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 같은 말이다. 그런데 내 생각에 이 책에서 목소리화하려는 것은 단순한 ‘말=동사’가 아니다. 비록 저자는 자기 글에 ‘동사’를 개념화한 것이 많다고 했지만, 나는 그렇게해서 확보된 말에는 ‘부사(adverb)’가 들어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것은 ‘말에 달라붙은 말(ad-verb)’이고, 더 엄밀히 말하자면, 말이 거기에 달라붙는 그런 말(“말의 존재론적 신체성”)이기 때문이다. 어제 내가 도미야마 선생의 환영사에서 들은 인상적인 말은 나카이 마사카즈가 했다는, ‘말의 모습’이라는 것이었다. “집단은 새로운 말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을 때, 그 ‘말의 모습’이라는 단어는 내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말의 의미와는 다른, 말의 모습이라는 것. 말에 달라붙어서 말에 어떤 색깔을 부여해주는 어떤 것, 말에 달라붙어 있는 어떤 것, 더 정확히는 ‘말이 거기에 달라붙어 있는 그런 말’, 나는 그것을 ‘부사적’이라고 느꼈다. 동사는 부사와 함께 있다. 문장에 부사가 명시적으로 쓰여있지 않다하더라도, 나는 모든 ‘동사’에는 ‘부사’가 붙어 있다고, 혹은 ‘동사’들은, 보이지 않은 어떤 ‘부사’에 붙은 말들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 책에서 도미야마 선생이 사실은 그것을 읽어내고 있다고, 동사를 확보하면서 또한 부사를 확보하고 있고, 말을 확보하면서 ‘말 이전의 말’ 또한 확보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어느 오키나와인이 훌륭한 일본인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가운데 흘리는 식은 땀이나 움켜쥔 주먹에서 도미야마 선생은 그것을 보고 있는 것 같다. 식민화된 삶을 예정된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할 때조차 우리의 신체는 식은 땀과 긴장된 근육의 형태로,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말하기 때문이다. 어떤 위화감을 표출하며 신체는 끊임없이 지금 여기가 ‘고향이 아니라고', ‘나라가 아니라고’ 말한다. 신체의 이러한 말은 니체가 ‘도래하는’ 철학자의 말로 생각했던 ‘어쩌면(혹시, vielleicht)’이라는 부사, 즉 ‘근거의 근거없음’을 의심하는 그 ‘불온한’ 가정과 예감의 부사를 떠올리게 한다. 어떤 ‘불가능성’으로 제시된 현실을 부정하는, 그래서 ‘불가능성’을 다시 ‘가능성’의 장으로 끌어내리는, 다시 말해 투쟁의 장소, 정치의 장소, 사유의 장소를 확보하게 하는 그 부사를 말이다.

사실 내게 이 말을 이 자리에서 떠올리게 해준 사람은 <<선악의 저편>>의 니체도 아니고, 니체의 말에 주석을 단 <<우정의 정치학>>의 데리다도 아니다. 나는 이 말의 중요성을 내가 얼마 전까지 철학교사로 일했던 장애인들의 야학에서 깨달았다. 어느 장애인이 자신이 그동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일, 장애인에게 사회가 암묵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강요했던 어떤 불가능으로서의 현실이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후, 가능과 불가능을 나누는 현실의 기준, 현실의 도덕적 율법을 의심하게 되면서 내뱉은 첫 마디가 ‘어쩌면’이었다. 이 말을 그가 아무리 낮은 소리로 내뱉었다고 해도 그것은 어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중대한 신호이다. 그것은 그를 지배해온 정동의 체제에 균열이 생겼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현재와는 다른 역사’의 가능성을 미리 배제하는 어떤 불가능성 앞에서, 의심과 물음의 장소를 확보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 이 장소가 저항과 각성, 정치와 사유의 장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장소가 미래를 되찾는 일, 미래로 귀향하는 일을 가능케 할 것이다. 바로 여기가 오키나와다. 나는 이 책을 이렇게 읽었다.